

[먼저 / 훈련의 방향부터-] 해설을 읽기 전에 한 번 읽어 봅시다.

- ① 비문학 지문에는 잉여가 없다. 다만, 정보의 중요도만 있을 뿐이다.
- ② 지문 독해 방법들이 보이면 좋다. 그러나 독해력이 먼저다.
- ③ 지문의 흐름을 장악하면 좋다. 그러나 독해력이 먼저다.
- ④ 지문의 구조가 보이면 좋다. 그러나 독해력이 먼저다.
- ⑤ 수능 독해는 '불완전한 정보 처리 과정'이다.

지문 '차분히' 읽고 전체 '독해' → 선택지 읽기 → '이해' 후 판단 or 지문으로 돌아가서 부분 '독해' 후 판단

수능 독해는 '이해' 아니면 '기억'이다.

독해력 상승 → 공통감 형성 → 미시적 독해의 완성 → 독해의 끝

[수능 독해의 기본 : 독해력을 키우는 습관]

- ① 첫 문단은 무조건 감속이다.(중요도를 판단하지 말고)
 - 물리적인 첫 문단 / 흐름이 바뀐 후 첫 문단
 - 첫 문단은 화제를 제시하거나, 방향을 암시한다.
- ② 각 문단 첫 번째 줄은 방향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차분히 읽는다.(중요도를 판단하지 말고)
- ③ 차분히 읽다가, 어느 순간 머리에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 문장, 문단들이 등장한다.
 - 속도를 줄여 차분히 읽고 / 손을 쓰거나 / 일단 처리하며 내려가거나
- ④ 개념 정보 / 방향 정보 / 사전 정보 / 세부 정보
 - 1) 개념 정보(C) : 중심 화제의 개념(이해해야 한다)
 - 2) 방향 정보(D) : 글의 흐름, 방향(보이면 좋다)
 - 3) 사전 정보(B) :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가 깔아주는 배경 지식(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기억)
- ⑤ 지문의 구조가 보이는 순간 가속이 시작될 수 있다.(구조가 보이면 정보량이 줄어든다.)
- ⑥ 중요하면 물어본다.(중요한 정보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 공통감 형성
 - 1) 문제 - 해결 2) 차이 3) 관계 4) 과정, 원리, 순서 5) 통시 6) 개념 - 사례

[한수달] 국어 Preview Training

[2주차 독서 수업용 해설]

[이승모T의 수업용 해설 활용법]

- ① 이 해설은 현장 강의의 해설을 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S1]을 풀고 나서 이 해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 ② 해설이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한수 온라인)
- ③ '독서'는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를 비교하시면 더 좋고, [사과의 진화]라는 부분 역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④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개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시면 수능 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반말로 쓰는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2주차] 독서 수업 지문

2015학년도 수능 B형 - 신재호의 '아' 사상

[수업 내용 주요 사항]

[사전 정보(B)의 모든 것]

- =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미리' 알아야 할 정보.
- = 본론을 이해하기 위해 출제자가 앞에 깔아주는 정보들

1) 특징

- 정보량이 일시적으로 쏟아진다.(이런 느낌을 기억해라. 실전에서 우리가 독해할 때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기술 분석을 통해 이런 느낌을 오히려 기억해 두면 실전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당연한 것이, 사전 정보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 아니다. 뒤에 제시될 본론을 위해서 깔아주는 개념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사전 정보만으로 글을 끝낼 수 없고, 최대한 늘어지게 쓰면 안 된다. 따라서 각 개념의 설명이 독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친절하지 않고, 한정된 분량 안에 필요한 개념들을 다 설명하다보니 쏟아지는 느낌이 난다.(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을 것이다.)
- 사전 정보는 반드시 출제된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보량이 많은데 출제가 된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우리를 고생시켰는데 출제가 안 된다면 더 기분 안 좋지 않나. 출제 될 거다. 단, 절대 깊게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 분석을 통해 사전 정보 부분이 정보량을 쏟아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묻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2) 사전 정보는 어떻게 제시될까.

① 주제의 일부에 대해서만 설명할 때(주제X)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의 비율인 연비로 나타내며, 이는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D)이러한 자동차의 연비는 엔진의 동력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엔진의 동력은 흡기, 압축, 폭발, 배기의 4 행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생산된다.(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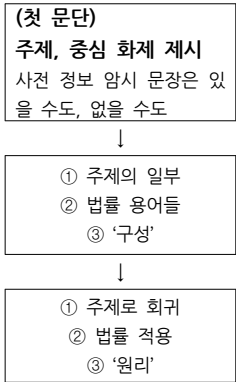
1문단을 차분히 읽으면, 엔진의 동력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 연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글의 방향이자 주제이다. 쉽게 말해 엔진의 동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연비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가 글의 주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문단에서는 엔진의 동력만 갖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필자 생각에는 '엔진의 동력에 따른 연비 차'라는 것을 독자가 이해하려면 일단 엔진의 동력부터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사전 정보라고 한다.

② 사전 정보 암시 문장

-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대놓고 이 이후에 사전 정보가 제시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A는 주제가 될 것이고 B에 대한 내용은 사전 정보가 된다. 우리가 지금 하게 될 신재호의 '아' 사상에도 이러한 문장이 나온다. ①의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②처럼 대놓고 사전 정보 나올 거라고 말해주는 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3) 사전 정보가 있는 지문의 일반적인 흐름



첫 문단에 주제가 암시되거나 중심 화제가 제시되고, 사전 정보 암시 문장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보이면 당연히 사전 정보처리하면 되고, ①, ②, ③ 정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흐름이므로 보였으면 좋겠다. ①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②의 경우, 법 지문의 목적은 어떠한 법률 규칙이나 원칙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이것과 관련된 법률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깔아주는 것이 사전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 지문에는 사전 정보가 많이 나온다. ③의 경우 역시 우리가 되게 자주 보는 말이고, 실제로 시험에서 '구성'된다는 말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기술 지문의 목적은 그 기술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각 구성 요소들은 미리 알아두어야 하기에 출제자가 '구성'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다. '구성'도 사전 정보이다.

정리한다. 사전 정보가 보이는 상황에 익숙해져라. 사전 정보는 정보량이 많고 일시적으로 쏟아지므로 실전에서 우리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사전 정보는 출제되나, 절대 깊게 묻지 않는다. 느낌이 기억되거나 상황이 보인다만,

- ① 이해하면 좋겠지만 명사 위주로 기억이나 남겨라. 깊게 묻지 않는다.
- ② 사전 정보가 끝나면 본론이 돌아온다. 즉 주제가 다시 시작된다. 흐름을 다시 잡을 줄 알아야 한다.

국어 영역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취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D)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전 정보 암시 문장)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첫 문단은 감속이다. 항상 차분하게 읽는다. 첫 문단을 잘 읽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첫 문단은 중심 화제가 제시되거나 주제가 던지시 제시된다. 신채호가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했다. 나처럼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하고 흘러갈 것이다.
- 차분히 읽으면 글의 방향이 보인다. 신채호가 ‘투쟁만’ 강조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식의 문장의 흐름이 나오면 이후의 내용은 신채호가 투쟁한 걸 설명할까? 연대한 걸 설명할까? 당연히 연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신채호가 ‘어떻게’ 연대를 지향했는지에 대해 읽어야 하므로 곧 이 문장은 글의 방향을 지시하는 방향 정보가 되고, 주제가 된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신채호가 어떻게 연대를 지향했는 것이다.
- 사실 이 문장을 차분히 읽어서 (), ()가 들어왔다면 누구와 연대했는지도 알 수 있다. 식민지 민중 = 조선인일 것이고,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 일본에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이 될 것이다. 물론 실전에서 이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 최소한 신채호가 투쟁만 한 건 아니네, 연대도 했네, 이게 글의 방향이겠구나 정도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 사전 정보 암시 문장 보이나? 결국 ‘아’가 주제가 될 것이다. 조금 더 얘기하면 신채호가 어떻게 연대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아’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국 2문단부터 ‘아’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이 모든 것은 전부 사전 정보가 될 것이다.
- 기억하자. 사전 정보는 출제가 된다. 그러나 깊게 묻지 않는다. 정보량이 쏟아질 것으로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떠밀려서 기억으로 가지 말고, 네가 스스로 기억하며 내려가야겠다고 힘을 아껴야 한다. 명사 위주로 기억이나 했다가 왔다가 할 생각하면서 우리는 버텨야 한다. 이 이후에 진짜 본론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C)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정(自正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정(恒正性)(C)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정(變正性)(C)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D)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아’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우리가 첫 문단에서 사전 정보 암시 문장이 보였다면, 지금부터는 사전 정보이고, 우리가 어쩌면 이해되지 않을 말들이 쏟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기억 모드로 바꿔 읽으면 된다. ‘아’의 개념이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를 하면 되고(강사의 개입이 필요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의 개념이네 하면서 내려간다.
-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실전에서 이 말이 명확하게 잘 들어올 리 없다. 일단 내려간다. 우리는 사전 정보를 읽고 있다. 굳이 이런 것들 다 이해하려 애쓰면서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
- 사전 정보니까 마음 비우고 기억이나 해야지 하고 내려가다가 개념 두 개가 나온다. 기억하자. ‘항성’, ‘변성’이다. 물론 위치만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습관을 하나 들인다면,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명사를 먼저 쓰고 설명을 이후에 쓰는 경우와, 설명이 먼저 나오고 명사를 나중에 써 주는 경우이다. 항성과 변성은 후자에 해당한다. 즉 명사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혹시 앞의 설명을 흘러간 것 같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확인해주는 습관을 들여주면 독해력 상승에 매우 좋다. 정리하자면, 항성 = 고유성 / 변성 = 환경에 적응
-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일단 흘러간다. 이 내용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겠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C)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C)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C),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C).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사전 정보가 끝났나? 그렇지 않다. 아직도 ‘아’에 대해 시작이다. 그 와중에 ‘아’에는 소아와 대아가 있다고 했다. 어쨌든 수능에서 이래저래 설명하다가 두 개로 갈라지면 무조건 출제가 된다.
- ‘소아’의 개념과 ‘대아’의 개념이다. 개념은 챙기되, 그래도 글을 좀 잘 읽는다면, 우리에게 ‘대아가 더 중요할 것임을 눈치 챌 수 있다. 바로 연결하면 대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또 모르니까 ‘상속성’과 ‘보편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 너희들은 지금 내 설명을 구구절절 읽고 있으니 피곤한 것이지, 사전 정보가 보여서 기억이 나 남기고 내려왔다면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 상속성 = 시간적, 생명력 / 보편성 = 공간적, 영향력이다.
-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하면 되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국어 영역

된다. 다만, 이후의 설명을 위해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상속성은 시간적으로 오래가는 것을 의미하고, 보편성은 공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위의 문장을 다시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공간적(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다보면 우리나라는 시간적으로 오래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오래가다 보면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사실 별 내용 아닌데 단어가 어려운 것일 뿐이다. 물론 오해하지마라. 실전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사전 정보니까 위치 기억했다가 물어보면 돌아오면 된다.

⑥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중요)

이것은 받아들여보자.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런 문장을 '정리 문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에서 뭔가 구구절절 얘기하다가 청자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정리해주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실 2문단부터 지금까지 필자는 우리에게 7개의 개념을 던졌다. '야', '항성', '변성', '소야', '대아', '상속성', '보편성'이다. 우리가 모르는 말을 무려 7개나 두 문단에 걸쳐 설명한 것이다. 당연히 체감 상 정보량이 많고, 힘들 것이다. 일단 사전 정보 처리했다면 명사 위주로 기억이나 남겼을 거고, 이 와중에 필자는 그래도 이 모든 개념들을 한 번 묶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문장을 정리 문장이라 한다. 그리고 다시 위의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정리 문장인지 일단 느껴봐라. '대아'는 3문단 얘기고, 항성과 변성은 2문단에 제시된 개념이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3문단에서 소개한 얘기가. 쉽게 말하자면 이 문장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개념들을 연결하고 정리해주는 문장이다. 이것을 정리 문장이라고 하고 보통 철학 지문에 이런 문장이 많다. 정리 문장이 무조건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이면 이 문장은 출제가 된다. **이걸 이해하고 싶다면 본인이 2번 문제 ④번 선택지를 확인해보면 될 것이다.(정답 선택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C)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때,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 읽을 때 보여야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연대다. 쉽게 말해서 사전 정보가 끝났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첫 문단에서 찾은 주제는 결국 신채호가 어떻게 연대를 지향했느냐는 것이었다. 이 주제가 머리에 잘 남아 있으면 아마 이 문장을 읽을 때 연대를 챙기고, 사전 정보가 끝났음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사전 정보가 아무래도 정보량이 많다보니, 사실 읽다가 주제를 잊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 읽고 있는 것인지 즉 주제는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좋다. 이제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나보다.
- ② 신국민의 개념이다. 가볍게 챙긴다. 아쨌든 우리가 신국민이 되면, 민족 생존이 가능해진다. 어차피 지금까지 모든 개념들을 기억이나 하면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애도 기억이나 하자.

[사고의 진화]

굳이 신채호의 사상을 한 번 씩 정리하면서 이해해보겠다. 정리해보면, 신채호 - 대아 - 항성과 변성 조화 - 상속성, 보편성 실현 - 신국민 - 생존

이런 것인데. 쉽게 이해하게 설명하면, 조선 민족이라는 대아가 민족 고유의 특성인 항성과, 환경에 적응하는 변성이 잘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 즉 오래 갈 거고, 보편성 즉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국민이 되고, 민족 생존이 가능해진다. 사실 이런 별 것 아닌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전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이렇게 순서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전 정보라는 것을 알고 현명하게 처리하면서 내려갔다.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된다. 항성, 변성은 몇 문단인가? 2문단이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몇 문단인가? 3문단이다. 신국민은 몇 문단인가? 4문단이다. 우리는 실전에서 순서까지 맞춰가면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다. 다만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명확히 알고 있다. 사전 정보는 깊게 묻지 않는다. 물어보면 왔다갔다하면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런 지문의 흐름에 익숙해지면 실제 시험장에서라도 개념이 쏟아진다고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족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족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신채호가 '야'를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굳이 팁을 하나 주면, 지문에서 '명료화'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명료화했으니, 우리도 조금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중요한 말이 보인다. 다시 한 번 상기하자. 우리의 주제는 뭐더라? 그렇지. 신채호가 연대를 어떻게 지향했느냐. 각이 나온다. '야와 비아 속의 아의 연대를 지향했다. 이것만큼은 무조건 챙겨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도 알고 싶던 주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읽었다면, 우리는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3번 문제의 답을 명확하게 고를 수 있다.

3.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주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챙겼다면, 답이 ③으로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신채호는 '비아 속의 아'와의 연대를 주장했지, 비아와의 연대를 주장한 적이 없다.(만약 ③을 맞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신채호 선생을 민족 반역자로 만들게 된다... 비아와의 연대라니... 그렇지?) 이것은 단순히 맥락이 없는 것이 아니다. 첫 문단에서 주제를 잘 파악하고, 이 주제를 5문단까지 끝까지 끌고 내려오면, 우리에게 어떻게 연대했느냐가 중요해지고, 선택지에서도 '연대'라는 말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답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어 영역

[사과의 진화]

가끔 학생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다.

Q. 선생님, '비아 속의 아' 역시 '비아에 포함된 거니까 반드시 틀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아요?

물론, '비아 = 일본'이라고 해 버리는 순간 이렇게 질문도 하지 않겠지만,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번 문제 ㉓의 다른 것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지문 마지막 「 」 부분을 한 번 정독하자.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㉓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비아와의 연대' 말고 하나 더 틀린 것 한 번 생각해보자.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밑을 내려다보지 않았으면 한다. 사고력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것이니까.

답을 공개하겠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민중과 민족은 같은 것인가? 지문에서는 민중과 민족을 구분하고 있다. 즉 '아'와 '아 속의 비아(친일파)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 민족이고, 이 중 '아'를 민중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해보자. '비아'와 '비아 속의 아'를 포함한 개념이 민족이다. 다만 일본 민족이겠지. 이 중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고 싶은 것이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조선 민중(아),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비아 속의 아)끼리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이 신채호 사상의 핵심이다. 따라서,

㉓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민족도 틀렸다. 민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아와의 연대는 맞을 수 없다. 신채호가 명료화 한 것은 비아 = 일본 민중 / 비아 속의 아 = 일본에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으로 구분한 일이었던 것이다. 물론 우리가 실전에서 민족과 민중을 구분하며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실전에서 비아와의 연대를 그른 것이 아닌 '민족'을 그었다면 나는 걱정할 것이다. 지나치게 예민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생각은 해보자. 결국 신채호가 5문단에서 명료화 한 것은 민족과 민중의 구분이고, 비아와 비아 속의 아를 구분한 것이 된다. 이미 읽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내용은 사실 이미 1문단에 나왔었다.

이미 지문 해설에서 2번과 3번 문항의 해설을 해서 굳이 문항 해설은 넣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한수달에 있는 해설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